

勞 動 經 濟 論 集
 第27卷(2), 2004. 8, pp. 67~89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아버지 학력과 노동시장 불평등*

조 우 현**

이 논문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개인의 교육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를 (i)직업선택 (ii)노동력상태의 선택으로 설정한 후, 가족 배경(또는 가족의 재산·소득)의 대리변수로서의 아버지 학력이 본인의 학력수준과 본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게 된다.

아버지 학력은 본인의 교육수준에 상당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아버지 학력은 본인의 직업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lau and Duncan, 방하남·김기현의 연구 결과와 다르며, 이 분야에 새로운 기여가 된다. 또한 이 논문은 부모의 학력은 본인의 비경제활동인구화에의 경향성을 낮음을 보고한다. 따라서 교육, 직업선택을 통한 부모 재산·소득불평등의 대물림과 비경제활동인구화로 인하여, 부모의 재산·소득의 현재소비로의 유실이라는 불평등 대물림 단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이 논문은 제시하고 있다.

— 주제어: 아버지 학력, 직업선택, 노동력상태선택, 불평등 대물림

투고일: 2004년 5월 18일, 심사일: 2004년 6월 1일, 심사완료일: 2004년 8월 9일

* 이 논문은 2002년도 숭실대 연구지원비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논문의 작성에는 임찬영 박사의 유익한 논평이 있었고, 숭실대 대학원 박사과정생 황선자의 연구 지원이 있었다. 노동경제 세미나(2004. 5.15)에서의 논문 발표시 유익한 논평을 해준 여러 참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익명의 두 심사위원의 자세한 논평에 감사드린다.

** 숭실대 경제국제통상학부(whcho@ssu.ac.kr)

I. 머리말

최근 교육의 대물림을 통해 부모의 재산·소득불평등이 세대간으로 재생산된다는 논의와 이와 관련된 연구가 국내에서 활발히 진전되고 있다. 특히 방하남·김기현(2000)은 Blau and Duncan(1967)의 기본 모형을 이용하여 가족 배경 → 자녀의 학교교육 →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의 인과관계를 설정한 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 배경의 대리변수로서 아버지 학력이 자녀의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노동시장 첫 직업과 현 직업에 큰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미 Blau and Duncan은 이 분야의 대표적 저서인 『미국의 직업구조(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p.171~173)』에서 아버지 학력이 자녀의 현 직업에 미치는 총효과는 완전히 간접적이며 아버지 학력은 자녀의 교육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¹⁾ 방하남·김기현(2000)은 Blau and Duncan(1967)의 기본 모형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여 동일한 결론, 즉 아버지 학력은 자녀의 노동시장 지위 획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본인의 학력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방하남·김기현, p.4, p.15, p.16).²⁾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Blau and Duncan(1967) 및 방하남·김기현(2000)의 논의대로 아버지 학력이 과연 자녀의 교육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직업선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학력이 간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자녀의 직업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³⁾ 본 연구는 한국에서는 아버지의 학력

1) “아버지 교육이 첫 직업과 현 직업에 미친 효과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는 그 효과가 극히 무시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 교육변수는 이들 변수에 대한 직접적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로써는 사용치 않고 폐기된다.” Blau and Duncan(1967), p.173.

2) 부모의 재산·소득과 자녀의 재산·소득 간에 대물림을 분석한 경제학자는 그리 많지 않았는데, 예외는 Schumpeter(1951)였다. 주로 사회학자들에 의해 부모의 재산·소득이 자녀의 교육·직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당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Blau and Duncan(1967)의 저서인 『미국의 직업구조(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Becker and Tomes(1986)가 가족간 재산·소득이전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3) Becker(1972)는 직접적 효과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가족

이 자녀의 직업선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직업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보고하게 될 것이다.

만약 본 연구가 제시하는 연구 결과가 옳다면, 이는 가족 배경이 자녀의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심대할 수 있음을 함축하게 된다. 즉 불평등의 세대간 대물림은 가족 배경이 자녀교육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로 나타나는 가족 배경의 간접적 효과와 가족 배경이 노동시장 성과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효과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Blau and Duncan(1967)은 아버지 학력이 본인의 직업 성취에 별다른 영향이 없음을 실증적으로 밝히면서, 미국은 개인의 직업상 성공이 개인의 학력과 능력에 의존하는 사회, 즉 업적지위(achieved status)사회라고 하였고, 만약 아버지 학력이 본인의 직업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의 직업상의 성공이 가족 배경에 의존하는 귀속지위(ascribed status)사회라고 하였는데,⁴⁾ 우리의 실증분석 결과 한국 사회는 업적지위와 귀속지위의 혼합사회임을 보이게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 논문은 부모의 재산·소득불평등이 다음 세대로 교육·직업을 매개로 이전되어 불평등이 세대간 대물림되는지 아니면 불평등의 대물림이 약화되는 경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부모의 재산·소득의 대리변수로서 아버지 학력을 이용할 때, 부모의 학력은 본인의 취업활동에 부(-)의 영향을 미침을 본 연구는 밝혀낸다. 즉 부모의 고학력은 본인의 비경제활동인구화의 경향성을 낳는다는 결과를 이 연구는 보고하게 된다. 부모의 고학력이 본인의 비경제활동인구확률을 높일 때, 그 함의는 자녀의 현재 소비는 부모의 재산·소득의 증여로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서 가족간 불평등은 오히려 약화되는 경향성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이 논문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개인의 교육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를 (i) 직종선택 (ii) 노동력 상태의 선택으로 설정한 후, 가족 배경(또는 가족의 재산·소득)의 대리변수로서의 아버지 학력이 본인의 학력수준과 본인의 노동시

배경이 유아기 훈련, 정규학교 교육, 졸업후 현장 훈련 그리고 우리가 현재 부르고 있는 '인적자본'에 있어서 여러 투자 등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오랫동안 논의해 왔다. 그와 같이 가족 배경은 소득과 직업의 주요한 간접적 결정요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족 배경이 소득과 직업에 관한 직접적 영향에 관해서는 별다른 중요성이 부여되지 않았다." 1972년 이후 지금까지 가족 배경이 소득과 직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다른 경제학자들에게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던 것 같다.

4) Blau and Duncan(1967), Chapter 4 와 Chapter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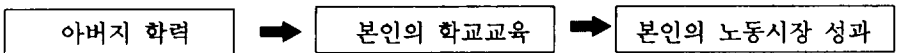
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게 된다. 불평등을 개인이 직면하는 조건 불균등, 즉 부모의 재산·소득과 관련된 불평등을 의미한다고 할 때, 이 논문에서는 아버지 교육수준은 자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낳고, 아버지 교육수준은 자녀의 직종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을 낳으며, 아버지 교육수준은 자녀의 비경제활동인구화를 촉진시키는 불평등을 낳음을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평등의 세대간 대물림에의 경향성과 불평등의 세대간 대물림 단절 현상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의해 불평등의 세대간 대물림의 크기는 결정될 것이라는 논의는 이 논문의 또 다른 기여가 될 것이다.

II. 추정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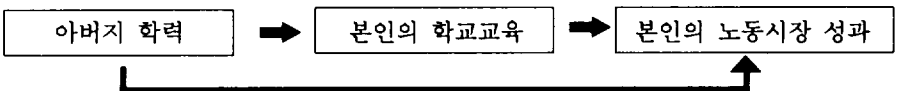
1. 인과관계의 설정

아버지 학력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변수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며, 또한 노동시장 불평등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일련의 인과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그 동안 Blau and Duncan(1967) 및 방하남·김기현(2000)에 의해 제시된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제시된 인과관계, 즉 가족 배경(또는 아버지 학력)→ 자녀의 학교교육→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라는 인과관계에서 가족 배경(또는 아버지 학력)→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라는 인과관계를 추가로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형은 (i)아버지 학력→ 자녀의 학교 교육)모형 (ii) (자녀의 학교교육, 아버지 학력→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아버지 학력은 가족의 재산(family wealth)이라는 변수의 대리변수이다. 구미

의 자료나 한국의 자료에서 본인의 학력, 부모의 학력, 본인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자료는 많지만, 부모의 재산을 동시에 수집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아버지 학력을 가족 재산의 대리변수로 이용하게 된다.

이 논문이 설정한 인과관계의 설정 및 그 추정은 단순히 모형을 재정립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Blau and Duncan은 아버지 학력이 본인의 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 부모의 낮은 재산·소득은 자녀빈곤으로 세습되어 빈곤의 악순환(Blau and Duncan, 1967, p.164-165, p.199-205)에 빠지게 되는, 즉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본인의 출생에 따라 규정되는 귀속지위(ascribed status)사회가 되며, 만약 아버지 학력이 본인의 학력에만 영향을 미치고 본인의 직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본인의 출생과는 관계없이 개인의 노력, 능력, 재능에 따라 결정되는 업적지위(achieved status)사회가 된다고 하였다. 즉 한국경제가 귀속지위사회인가 아니면 업적지위사회인가를 검증할 정도로 본 연구가 지니는 함의는 크다고 할 것이다.

부모의 재산·소득과 관계없이 각 개인이 적성·능력·노력을 이기적 동기에서 발휘하면, 시장경제가 가장 그 기능을 잘 발휘하여 경제적 진보와 물질적 번영이 가능하다고 할 때, 본 연구는 한국 경제가 업적지위사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2. 아버지 학력과 본인의 교육수준

‘아버지 학력 → 자녀의 학교교육’ 모형은 방하남·김기현(2000), 최근 Ki Hun Kim (2004)에 의해 이미 분석되었기 때문에 본 논문의 새로운 기여는 별로 없다. 다만, 모델의 내적 일관성을 위해 아버지 학력과 본인의 교육수준의 관계를 분석한다. 아버지 학력은 $EDUF_i$ 라 하고 본인의 학력을 EDU_i 라고 할 때 우리는 식 (1)을 다중회귀모형에 의해 추정하게 된다.

$$EDU_i = a_0 + a_1 EDUF_i + \text{여타 관련변수들의 영향} + \varepsilon_i \quad (1)$$

(+)

식 (1)에서 아버지 학력이 본인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는 다음 두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아버지의 높은 학력, 가계의 많은 재산은 본인 교육투자의 조달비용을 낮추게 작용하며, 둘째, 아버지의 높은 학력, 가계의 많은 재산은 자녀의 교

육투자 결정시 장래 수익을 할인하는 시차할인율(rate of time preference)을 낮게 만들어 교육의 투자수익률을 높이게 작용하게 되므로 아버지의 학력은 본인의 교육수준 정(+)의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3. 아버지 학력, 본인의 학력 그리고 본인의 노동시장 성과

노동시장 성과(labor market outcomes)를 나타내는 여러 변수 중 우리는, 하나는 현재 취업하고 있는가 여부, 다른 하나는 장래에 있어서 임금성장 가능성(wage growth prospects) 있는 직종을 갖고 있는가 여부라는 두 변수를 사용한다. 직업을 나타내는 변수를 OCC_j라고 하고, 노동력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EMP_j라고 표시할 때, '본인의 학교교육, 아버지 학력→본인의 노동시장 성과'라는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⁵⁾

$$\log_e(\text{OCC}_j/\text{OCC}_7)_i = \gamma_0 + \gamma_1 \text{EDU}_i + \gamma_2 \text{EDUF}_i + \text{여타 관련변수의 영향} + \mu_i \quad (2)$$

$j=1,2,\dots,6. \quad (+)$

$$\log_e(\text{EMP}_j/\text{EMP}_3)_i = \beta_0 + \beta_1 \text{EDU}_i + \beta_2 \text{EDUF}_i + \text{여타 관련변수의 영향} + \epsilon_i \quad (3)$$

$j=1,2 \quad (-)$

직종(OCC_j)은 관리직(OCC₁), 교육관련 전문직(OCC₂), 기술직(OCC₃), 사무직(OCC₄), 판매직(OCC₅), 생산직(OCC₆), 노무직(OCC₇)이라는 직종을 나타내며, EMP_j는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라는 노동력상태를 나타낸다. 우리는 식 (2)와 식 (3)을 다항로짓모형(multiple logit model)에 의해 추정한다.

식 (2)에서 개인의 직종선택에 있어서 각 개인은 잠재평생소득(potential life-time earning)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한다고 할 때, '높은 학력, 많은 재산'의 부모를 가진 개인은 낮은 시차할인율을 가지며 그 결과 장래에 높은 수입을 낳는 직종을 더 선호하게 만든다. 또는 한국과 같이 성차별이 만연된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고학력은 성차별이 없어 고소득이 보장되는 직종을 자녀로 하여금 더 선호하게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귀족지위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고학력과 높은 사회적 영향력이 자녀로 하여금 장래 임금성장 가

5) 직업선택에 관한 모델의 정형화(specification)에 관해서는 Schmidt and Strauss(1975), p.473 참조.

능성이 높은 직종을 선택하게 된다면, 식 (2)에서 아버지 학력은 본인의 유망직종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식 (3)에서 아버지의 고학력과 많은 재산이 본인의 노동력상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 가지라고 판단된다. 첫째, 그것은 본인의 선호체계를 여가 지향적으로 만들어 개인의 보상요구임금 또는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을 높이게 작용하며, 개인의 경제활동참가 또는 취업확률을 낮추도록 작용하게 된다. 둘째, 부모의 재산 또는 상속으로부터 예상되는 소득은 본인에게는 경제활동참가 결정에 있어서 비근로소득 또는 불로소득의 역할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경제활동참가 또는 취업확률을 낮춘다. 셋째, '아버지의 높은 학력→ 가계의 많은 재산'은 장래 수입을 할인(또는 불로소득)하는 사치할인율을 낮게 만들기 때문에 장래 예상되는 비근로소득(또는 불로소득)의 크기를 높이며, 현재 시장임금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성을 추가적으로 낳는다. 따라서 식 (3)에서 아버지 학력은 취업확률에 부(-)의 효과를 미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4. 노동시장 불평등과 세대간 불평등 대물림의 새로운 측면

평등은 기회균등, 조건균등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균등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기회균등은 개인에게 성, 지역, 인종, 나이, 종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소득과 지위를 추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때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른 차등대우를 용인한다. 조건균등은 부모의 재산·소득과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며, 결과에 있어서 균등은 산출물을 구성원에게 능력과 자질을 고려치 않고 $1/n$ 로 나누는 것과 동일하다. 불평등 또한 기회불균등, 조건불균등 결과불균등의 의미를 지닌다. (박호성, 1994)

부모의 학력이 가족 재산의 대리변수로 사용될 때, 노동시장불평등은 부모 재산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차등적 대우를 지칭한다. 가계별 자산·재산소유 불평등이 상속세, 증여세 등에 의해 해소되지 않는 한, 각 개인은 조건불균등에 직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교육투자시, 부모의 재산이 개인의 인적투자 비용을 낮추고, 낮은 시차할인율로 해서 장래 투자수익 흐름의 가치를 높인다면, 이는 조건 불균등이다. 부모의 고학력과 재산상의 유리한 위치는 개인의 시차할인율을 낮추어 직업선택에 있어서 자녀로 하여금 장래 소득창출 능력이 큰 유망직업을 선택하게 한다면 이것 또한 조건 불균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소득은 불로

소득인데 이것이 자녀의 경제활동참가에 부(-)의 영향을 미치면 이 또한 현 시점 조건 불균등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 부모 재산·소득 덕분에 먹고 노는 사람과 비교하여 조건 불평등을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 학력·재산과 관련한 노동시장에 있어서 불평등은 인적자본투자, 직업선택과 경제활동참가에 있어서 부모학력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세 측면으로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불평등은 노동시장에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지만, 현 세대의 불평등이 다음 세대로 불평등이 대물림이 되는 정도는 두 개의 상반되는 힘의 상호작용 결과에 의존한다. 즉 부모의 재산·소득이 인적자본투자 및 직종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 불평등을 세대간에 이전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모의 재산·소득이 자녀를 경제활동에서 퇴장시키고 부모의 증여로 자녀가 소비활동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한 이는 가족간 불평등을 세대간에는 축소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⁶⁾ 현 세대에서의 노동시장 불평등이 다음 세대에서의 재산·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지 아니면 약화시킬지는 그야말로 보다 심도있는 실증분석을 요청하는 분야가 된다. 다만, 우리가 이 논문의 본 주제는 아니지만 지나가면서 제시하는 통찰력은 부모소득·재산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방식은 일방(一方)으로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 경향성, 대물림 단절경향성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이다.

Ⅲ. 추정 결과

본 연구는 방하남·김기현(2000) 연구와 대비될 수 있도록 2000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1. 아버지 학력이 본인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

식(1)에 있어서 종속변수는 본인의 학교교육년수이며, 독립변수는 아버지 학력변수 이외에 아버지 직업을 나타내는 변수인 관리직 더미(FMANAGE), 교육관련 전문직 더

6) Becker and Tomes(1986)은 이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와 다른 방식으로 세대간 불평등 확대 또는 축소를 가족의 성장과 붕괴(the rise and fall of families)라고 지칭한 바 있다.

미(FTEACH), 기술직 더미(FTECH), 사무직 더미(FCLERK), 판매직 더미(FSALES), 농림수산업 더미(FAGRI), 생산직 더미변수(FBLUE)를 포함(노무직이 기준그룹임)하고, 본인이 14세 당시 살던 지역을 나타내는 변수로 서울지역 더미(FSEOUL), 서울제외 6대 도시지역 더미인 FURBAN을 포함(서울·6대 도시 이외지역이 기준 그룹임)시켰고, 나

<표 1> 변수의 정의

| 변수명 | 변수에 대한 설명 |
|----------|--|
| EDUF | 아버지 학력년수 졸업기준으로, 무학 0, 초등학교 6년, 중학교 9년, 고등학교 12년, 전문대 14년, 대학교16년, 대학원이상 18년으로 하였음. 졸업자가 아니면, 그 전 단계 교육년수에서 각 개인이 이수한 학년 정보를 합산하였음. |
| OCC | 임금근로자 본인의 직업을 나타냄. 아버지 직업분류와 같음. 단, 농림·어업직이 제외됨. 본인의 직업이 관리직 OCC ₁ , 교육관련 전문직 OCC ₂ , 기술직 OCC ₃ , 하급사무직 OCC ₄ , 판매직 OCC ₅ , 생산직 OCC ₆ , 노무직 OCC ₇ 으로 분류함. |
| EMP | 연령이 15세 이상 민간인구로써 피용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서 18시간 이상 일한자는 취업자로 EMP ₁ , 실업자 EMP ₂ , 비경제활동인구 EMP ₃ 으로 분류 |
| AGE | 본인의 연령 |
| EDU | 본인의 학력년수. 아버지 학력년수와 같은 방법으로 정의함. |
| EXP | 학교졸업후 노동시장에서의 총경력변수(연령-교육년수-6) |
| EXPSQ | 총경력변수의 제곱 |
| FMANAGE | 조사 대상자가 14세 일 때, 아버지 직종관련 더미변수. 고위공무원, 기업고위임직원 및 교육관련 되지 않는 전문직이면 1, 아니면 0 |
| FTEACH | 아버지 직종관련 더미. 교육관련 전문직이면 1, 아니면 0 |
| FTECH | 아버지 직종관련 더미. 공학기술공 또는 준전문가 직업이면 1, 아니면 0 |
| FCLERK | 아버지 직종관련 더미. 하급사무직이면 1, 아니면 0 |
| FSALES | 아버지 직종관련 더미. 판매원 등의 서비스직이면 1, 아니면 0 |
| FAGRI | 아버지 직종관련 더미. 농업 및 어업 종사 근로자이면 1, 아니면 0 |
| FBLUE | 아버지 직종관련 더미. 생산직이면 1, 아니면 0 |
| | 노무직이 기준 그룹, 즉 노무직이면 FMANAGE=FTEACH=FTECH=FCLERK=FSALES=FAGRI=FBLUE=0 |
| FSEOUL | 조사 대상자가 14세일 무렵 주로 성장한 곳이 서울이면 1, 아니면 0 |
| FMETRO6 | 조사대상자가 14세일 무렵 거주지가 6대 시(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전주)이면 1, 아니면 0 |
| | 서울 및 6대 광역시 아닌 기타지역이 기준그룹임 |
| GENDER | 성더미변수. 남성이면 1, 여성이면 0 |
| MARRIED | 결혼여부 더미변수. 기혼, 별거, 사별, 이혼이면 1, 미혼이면 0 |
| SEOUL |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가 서울이면 1, 아니면 0 |
| URBAN | 조사대상자의 거주지가 6대시(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전주) 1, 아니면 0 |
| UNEARN98 | 본인 가구의 1998년 한 해동안에 국한한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기타 비근로소득의 합. 즉, 금융기관 이자소득, 주식매매차익, 배당금 등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매매 차익 등의 부동산 소득, 퇴직금 등의 기타 비근로소득의 합. 단위는 만원임. |

이(AGE)와 성을 나타내는 더미(GENDER)를 포함시켰다(표 1 사용된 변수의 설명 및 부표 1의 변수의 평균값 참조). 개인의 학업능력 또는 IQ를 나타내는 변수는 이용 가능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생략한다. 따라서 누락변수(omitted variable)로 인하여 계수의 추정에서 편의(bias)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표본은 2000년 한국노동패널의 조사 대상자 전체이다(표본에 나타난 변수 평균은 부표 1 참조).

<표 2>에 나타난 추정 결과에 의하면, 아버지 학력은 자녀의 학력에 실로 강력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는 남녀 모두에 공통되나, 남성의 경우 추정계수의 크기(0.2057)는 여성의 그것(0.1699)을 상회한다. 전체, 남·녀에 있어서 관리직, 교육전문직이라는 고급 화이트칼라 직종이 예상과는 달리 자녀교육년수에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영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아버지 직종 중 관리직, 교육전문직, 하급사무직, 판매직 등 화이트칼라 직종이 노무직에 대비하여 자녀교육년수에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통계적 유의성을 갖고 있지 않다. 아버지 직업이 농수산업이거나 생산직인 경우 노무직 대비 자녀교육년수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표 2> 본인 학력수준 결정요인의 추정치: 다중회귀분석 결과

| | 전 체 | 남 성 | 여 성 |
|----------------|------------------|------------------|------------------|
| | 추정계수 | 추정계수 | 추정계수 |
| 절편 | 13.360(88.62)*** | 14.879(75.29)*** | 13.083(62.79)*** |
| EDUF | 0.191(23.51)*** | 0.205(19.10)*** | 0.169(14.68)*** |
| FMANAGE | 0.277(1.31) | 0.357(1.28) | 0.211(0.70) |
| FTEACH | -0.240(0.87) | -0.423(1.21) | -0.114(0.28) |
| FTECH | -0.471(2.96)*** | -0.589(2.87)*** | -0.306(1.31) |
| FCLERK | 0.371(2.59)*** | 0.250(1.33) | 0.464(2.24)** |
| FSALES | 0.023(0.21) | -0.113(0.74) | 0.092(0.57) |
| FAGRI | -0.578(6.03)*** | -0.780(6.10)*** | -0.478(3.53)*** |
| FBLUE | -0.874(7.67)*** | -0.808(5.31)*** | -0.876(5.45)*** |
| FSEOUL | 0.522(5.74)*** | 0.371(3.03)*** | 0.634(4.97)*** |
| FURBAN6 | 0.307(3.81)*** | 0.251(2.36)** | 0.351(3.06)*** |
| AGE | -0.108(48.03)*** | -0.145(50.29)*** | -0.061(18.23)*** |
| GENDER | 1.527(25.90)*** | | |
| R ² | 0.4459 | 0.5782 | 0.2531 |
| 표본의 크기 | 11351 | 5888 | 5462 |

주: ()안의 값은 t값의 절대치임.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를 지칭함.

여성의 경우, 아버지의 사무직 더미변수만 자녀의 교육수준에의 영향에 예상되는 부호를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갖고 있을 뿐, 나머지 결과는 남성과 유사하다. 서울지역과 6대 도시지역은 기타지역에 비하여 자녀의 교육수준을 높이게 작용한다. 그리고 본인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적자본투자(교육년수)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아버지 학력이 본인의 직종선택에 미치는 영향

식 (2)의 추정에서 Blau and Duncan과 방하남·김기현은 종속변수를 한국 표준직업 분류 소분류별 직업위세점수로 삼은 데 비해 우리는 노동경제학 전통에 따라 직종을 더미변수로 하여 직종선택모형을 추정하게 된다. 예컨대, 직종선택의 결정모형으로는 Schmidt and Strauss(1975)의 다항로짓모형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병선·임찬영(2002)이 Schmidt and Strauss(1975)의 모형을 한국노동패널에 적용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병선·임찬영(2002)의 모델에서 설정된 바와 같이 직종을 관리직, 교육관련 전문직,⁷⁾ 기술직, 사무직, 판매직, 생산직, 노무직으로 구분한다. 기준 직종을 노무직으로 하여 학력, 노동시장 경력, 성, 결혼 상태, 7대 도시 거주지 여부 등을 직업선택의 설명변수로 고려하였으나 7대 도시 거주지 더미변수를 서울지역과 6대 도시지역 그리고 기타지역으로 세분하여 서울지역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본 논문의 핵심 변수인 아버지 교육년수를 새로운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표본은 2000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에 속하는 근로자를 제외하였다(표본에 나타난 변수 평균값은 부표 2참조).

<표 3>에 나타난 남녀 전체에 대한 추정 결과에 의하면, 직업선택에 그동안 중시되어 온 본인의 교육수준, 경력년수, 성 이외에 부모의 학력이 실로 중요함이 나타나고 있다.⁸⁾

7) 일반적으로 직업분류코드가 100에서 246 사이이면 관리전문직으로 하나, 여기서는 직업분류코드 100-246 중 교육전문가(교수, 강사, 초·중등 교사 등)를 나타내는 변수(직업분류코드 231-235)를 따로 만들고, 나머지를 관리직 더미로 처리하였다. 서병선·임찬영(2002, p.30)은 그 이유로 교육관련 전문직에 여성의 비중이 높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8) 익명의 심사위원은 방하남·김기현과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다른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이것이 방법론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하였다. 필자는 이해 대해 다음과 같은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방하남·김기현의 직종선택 모형에서의 종속변수는 직업위세라는 연속변수이나 본 연구에서는 직종더미변수인데, 실증분석에

본인 교육이 직종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만을 살펴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각 개인은 자신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무직 대비 교육전문직, 관리직, 기술직, 사무직, 판매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효과는 아버지 교육이 자녀 교육을 매개로 하여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포함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부모 교육이 직종선택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만을 살펴보면,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각 개인은 노무직 대비 관리직, 교육전문직, 판매직, 사무직, 기술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상위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어,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직업선택에 미치는 뚜렷한 영향이 식별되고 있다.

성별 직종선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계수를 위주로 살펴보면, 본인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은 노무직 대비 교육전문직, 관리직, 기술직, 사무직, 판매직의 순으로 직종을 선호하며, 여성은 관리직, 교육전문직, 기술직, 사무직의 순이다.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계수를 위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남성은 관리직, 사무직 순으로 직종을 선택하며, 여성은 교육전문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 학력이 자녀의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아버지 학력은 책임감과 리더십이 강조되는 직업인 사무직 및 관리직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여성의 경우는 성차별이 없으며 안정적인 교육전문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버지 학력이 남성은 남성다운 일과 여성은 여성다운 일을 맡는 성별 직업분리(occupational segregation)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에 나타난 결과 중 특히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여성 본인의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일수록,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 확률과 실업 확률 모두 높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주요 집단이 저소득가구의 저학력 여성인 점을 시사하고 있다.

서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종속변수를 연속변수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미변수로 처리하기도 하기 때문에 방법론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경제학자는 보통 직업더미변수를 이용하고 사회학자들은 직업위세점수를 이용한다. 둘째, 방하남·김기현은 한국의 자료를 좀더 면밀히 검토했다면 필자와 동일한 결과, 즉 부모 학력이 자녀 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냈을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Blau and Duncan(1967)은 부친의 학력의 자녀의 현 직업위세점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p.174의 표 5.2 참조)에 의거하여, Blau and Duncan의 지위획득경로모형에서 부친의 학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배제하였는데, 방하남·김기현이 한국의 경우에도 동일한 다중회귀분석을 행하였더라면 한국의 경우는 미국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으리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표 3〉 직종선택 결정요인 추정치: 다항로짓 추정 결과

| | | 관리직 /노무직 | 교육직 /노무직 | 기술직 /노무직 | 사무직 /노무직 | 판매직 /노무직 | 생산직 /노무직 |
|----|---------|----------------------|----------------------|----------------------|----------------------|----------------------|-----------------------|
| 전체 | 절편 | -13.866*** (0.86) | -15.942*** (0.83) | -6.977*** (0.50) | -3.340*** (0.49) | 0.844** (0.43) | 1.635*** (0.34) |
| | EDU | 0.989*** (0.05) | 1.235*** (0.05) | 0.637*** (0.03) | 0.441*** (0.03) | 0.071** (0.03) | 0.071 (0.02) |
| | EXPY | 0.008 (0.01) | 0.007 (0.01) | -0.042*** (0.009) | -0.073*** (0.009) | -0.066*** (0.008) | -0.069*** (0.007) |
| | MARRIED | 0.022 (0.31) | -0.224 (0.28) | 0.489** (0.22) | 0.296 (0.21) | 0.368* (0.21) | 0.924*** (0.19) |
| | SEOUL | -0.242 (0.25) | -0.765*** (0.23) | -0.012 (0.17) | -0.170 (0.17) | 0.081 (0.16) | -0.310** (0.14) |
| | URBAN6 | -0.604** (0.27) | -0.377* (0.22) | -0.212 (0.16) | -0.459*** (0.16) | -0.077 (0.15) | 0.007 (0.12) |
| | EDUF | 0.078*** (0.02) | 0.053** (0.02) | 0.031* (0.01) | 0.037** (0.01) | 0.046*** (0.01) | 0.001 (0.01) |
| | GENDER | -1.005*** (0.24) | -2.305*** (0.21) | -0.431*** (0.15) | -0.951*** (0.15) | -1.061*** (0.14) | 0.775*** (0.12) |
| 남성 | 절편 | -13.706*** (1.06) | -18.943*** (1.29) | -7.985*** (0.66) | -5.150*** (0.66) | -0.764 (0.70) | 1.890*** (0.45) |
| | EDU | 0.909*** (0.06) | 1.277*** (0.08) | 0.689*** (0.04) | 0.443*** (0.04) | 0.144*** (0.05) | 0.001 (0.03) |
| | EXPY | 0.001 (0.01) | -0.003 (0.01) | -0.069*** (0.01) | -0.067*** (0.01) | -0.113*** (0.01) | -0.0775*** (0.009) |
| | MARRIED | 0.799** (0.39) | 0.714* (0.41) | 1.222*** (0.26) | 1.439*** (0.27) | 0.987*** (0.28) | 1.385 (0.22) |
| | SEOUL | -0.559* (0.31) | -0.780** (0.33) | -0.062 (0.22) | -0.066 (0.22) | 0.483** (0.24) | -0.324* (0.18) |
| | URBAN6 | -0.687** (0.32) | -0.443 (0.32) | -0.237 (0.21) | -0.409* (0.22) | 0.240 (0.23) | 0.085 (0.16) |
| | EDUF | 0.073*** (0.02) | 0.024 (0.03) | 0.026 (0.02) | 0.048** (0.02) | 0.023 (0.02) | 0.011 (0.01) |
| 여성 | 절편 | -16.271*** (1.76) | -14.449*** (1.27) | -5.950*** (0.95) | -1.513 (0.90) | 1.709*** (0.68) | 2.988*** (0.68) |
| | EDU | 1.209*** (0.11) | 1.181*** (0.08) | 0.604*** (0.06) | 0.409*** (0.06) | 0.063 (0.04) | -0.054 (0.04) |
| | EXPY | -0.0008 (0.02) | 0.017 (0.02) | 0.009 (0.01) | -0.089*** (0.01) | -0.036*** (0.01) | -0.066*** (0.01) |
| | MARRIED | -1.569*** (0.60) | -2.022*** (0.51) | -1.550*** (0.48) | -1.553*** (0.46) | -1.186*** (0.44) | -0.235 (0.46) |
| | SEOUL | 0.293 (0.45) | -0.728** (0.35) | 0.139 (0.28) | -0.265 (0.27) | -0.166 (0.23) | -0.223 (0.24) |
| | URBAN6 | -0.306 (0.50) | -0.312 (0.32) | -0.061 (0.27) | -0.497** (0.25) | -0.259 (0.21) | -0.117 (0.21) |
| | EDUF | 0.054 (0.04) | 0.074** (0.03) | 0.022 (0.02) | 0.016 (0.02) | 0.040 (0.02) | -0.042 (0.02) |

주: ()안의 값은 표준오차.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

3. 아버지 학력이 본인의 노동력상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

노동력상태는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진다. 노동력상태를 개인이 선택한다고 할 때, 그 주요 결정요인은 시장임금과 개인의 보상요구임금(또는 의중임금)과의 격차, 즉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이다. 여타 조건이 일정 불변일 때, 시장임금이 높을수록 또는 보상요구임금이 낮을수록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확률은 낮게 되고 반대로 시장임금이 낮을수록 또는 보상요구임금이 클수록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확률은 높아진다. 이러한 단순논리는 실증분석에 들어가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지니게 된다.

첫째,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시장임금은 관측되지 않으며, 동시에 보상요구임금(의중임금)의 추정⁹⁾이 어렵기 때문에 노동력상태 선택은 추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시장임금의 대리변수로서 전통적 인적자본론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개인의 교육, 경력, 경력자승, 성, 결혼상태, 거주지 등을 사용하고, 보상요구임금(의중임금)의 대리변수로 성,¹⁰⁾ 본인의 학력,¹¹⁾ 비근로소득,¹²⁾ 부모의 학력, 거주지¹³⁾ 등을 이용한다.

우리가 핵심 변수로 고려하고 있는 아버지 학력은 가계의 재산·소득의 대리변수라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고학력→가계의 높은 재산·소득→본인의 높은 예상 불로소득'이 되므로 본인의 보상요구임금을 높이게 작용하여 경제활동참가에 명백히 부(負)의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본인의 노동력상태 선택에서 교육이 미치는 효과는 한편으로는 시장임금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상요구임금 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본인 교육이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크기와 방향은 두 상반되는 효과의 크기에 달려 있기

9) 2000년도 노동패널 조사에서는 의중임금에 관한 자료를 구직자에 국한하여 조사하고 있어 전체 미취업자 중 의중임금에 관한 자료는 4.25%에 불과하다.

10) 여성은 가정재(home goods) 생산 때문에 보상요구임금 수준이 남성보다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11) 교육은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공부라는 힘든 일과 관련되어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수반하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의 어려움과 비용에 대한 보상요구가 크고 따라서 보상요구임금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12) 비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보상요구임금 수준이 높아진다.

13) 도시지역 거주는 가정재생산에 있어서 시장구입상품에 보다 의존하게 만들어, 가정재생산으로 인한 보상요구임금 수준을 낮추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도시지역의 교통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등으로 보상요구임금 수준을 높이게 작용하는 양면성을 갖는다.

때문이다.

경력연수는 시장임금을 높이므로 본인의 경제활동참가에 정(正)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남성을 포착하는 성 더미변수는 명백히 정(正)의 부호를 갖게 될 것이다. 여타 조건이 일정불변일 때 남성의 시장임금은 여성에 비해 높고 보상요구임금은 여성보다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근로소득은 보상요구임금 수준을 높이므로 경제활동참가에 명백히 부(負)의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노동력상태 선택 결정모형이 갖는 두 번째 어려움은 표본을 앞의 교육투자 결정, 직업선택 등에서의 같이 전체, 남·녀로 구분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여성 중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노동력상태 선택 모형은 다르고 따라서 포함되는 설명변수가 다르기 마련이다. 예컨대 기혼여성의 노동력상태 선택에는 무엇보다도 기혼여성의 보상요구임금 수준과 관련된 남편의 소득(여성 본인의 관점에서는 비근로소득이 됨), 가계 생산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수, 자녀의 연령 구성(예컨대 6세 미만 자녀의 수)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혼여성의 시장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력변수 또한 경력단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녀의 노동력상태 선택에서 고려되는 설명변수의 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연구의 목적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분석이 아니라, 아버지 학력이 전체 표본에서 그리고 성별로 나눈 표본에서 개인의 노동력상태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기 때문이다.¹⁴⁾

식 (3)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 재학생을 제외한 만 15세 이상 민간인구를 표본으로 이용한다(표본에 나타난 변수 평균값은 부표 3 참조). 우리는 졸업 후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부모 학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표 4>에 나타난 추정 결과 중 비경제활동인구 상태 대비 취업확률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본인 학력의 영향은 예상대로 불분명하며, 경력은 예상한 바와 같이 정(正)의 효과를 미치며, 비근로소득과 아버지의 학력은 부(否)의 영향을 미친다.

비경제활동인구 상태 대비 취업확률의 경우, 본인 학력은 여성의 취업에 부(否)의 영향을 미친다. 즉 여성의 높은 학력은 시장임금보다도 오히려 보상요구임금 수준을 높인

14) 가계의 금융·부동산 소득을 남편 소득의 대리변수로 이용하고, 자녀의 수와 연령 구성을 여성의 기혼여성 더미변수가 대신 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이 연구가 취하는 접근방법은 수용될 수도 있다.

결과이다. 아마도 자녀에 대한 질적 수준이 높은 교육과 관련하여 고학력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성의 경력은 예상된 정(正)의 부호를 가지며, 비근로소득 그리고 아버지 학력은 예상된 부(負)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에서 본인 교육의 효과를 살펴보면, 남성 본인의 학력이 낮을수록 생산직과 노무직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추정 결과는 여성 본인의 학력이 낮을수록 판매직과 생산직, 노무직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노동력상태 선택 결정요인 추정치: 다항로짓 추정결과

| | | 취업자/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
|----|----------|----------------------|---------------------------------|
| 전체 | 절편 | -0.276(0.13)** | -2.124(0.30)*** |
| | EDU | -0.005(0.009) | -0.025(0.02) |
| | EXPY | 0.105(0.006)*** | 0.103(0.01)*** |
| | EXPSQ | -0.002(0.00009)*** | -0.002(0.0002)*** |
| | MARRIED | -0.143(0.08)*** | -1.13(0.18)*** |
| | UNEARN98 | -0.00008(0.00001)*** | -6.9×10 ⁻⁶ (0.00003) |
| | SEOUL | -0.305(0.05)*** | -0.006(0.13) |
| | URBAN6 | -0.276(0.05)*** | -0.132(0.13) |
| | EDUF | -0.027(0.005)*** | -0.045(0.01)*** |
| | GENDER | 1.299(0.05)*** | 1.431(0.11)*** |
| 남성 | 절편 | 0.452(0.22)** | -1.318(0.39)*** |
| | EDU | -0.009(0.01) | -0.022(0.02) |
| | EXPY | 0.113(0.01)*** | 0.104(0.02)*** |
| | EXPSQ | -0.002(0.0001)*** | -0.002(0.0003)*** |
| | MARRIED | 1.608(0.14)*** | 0.358(0.24) |
| | UNEARN98 | -0.0001(0.00003)*** | -0.00007(0.00005) |
| | SEOUL | -0.270(0.10)*** | 0.213(0.17) |
| | URBAN6 | -0.409(0.09)*** | -0.212(0.17) |
| | EDUF | -0.032(0.01)*** | -0.045(0.01)*** |
| 여성 | 절편 | 0.631(0.17)*** | -0.735(0.51) |
| | EDU | -0.022(0.01)* | -0.079(0.03)** |
| | EXPY | 0.112(0.0008)*** | 0.103(0.02)*** |
| | EXPSQ | -0.001(0.00001)*** | -0.002(0.0004)*** |
| | MARRIED | -1.409(0.12)*** | -1.970(0.32)*** |
| | UNEARN98 | -0.00006(0.00002)*** | 8.9×10 ⁻⁶ (0.00004) |
| | SEOUL | -0.326(0.07)*** | -0.361(0.22) |
| | URBAN6 | -0.207(0.07)*** | -0.109(0.20) |
| | EDUF | -0.026(0.007)*** | -0.466(0.02)** |

주: ()안의 값은 표준오차의 값임.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를 지칭함

4. 추정 결과의 요약

<표 2>에서 <표 4>에 나타난 실증분석 중 전체 표본에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i) 아버지의 학력이 본인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후자가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버지 학력은 각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경우 교육관련 전문직의 선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 (ii) 아버지의 고학력은 개인이 상위 직종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며, 아버지의 저학력은 개인이 생산직이나 노무직을 선택할 확률을 높이게 작용하여, 아버지 학력은 개인간 조건 불평등을 낳는다.
- (iii) 아버지의 고학력은 개인이 비경제활동인구화 확률을 높임으로써, 즉 부모 덕에 먹고 노는 확률을 높임으로써 현 세대 조건불평등을 낳는다.
- (iv) 아버지 교육이 자녀교육 수준 및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쳐, 세대간 부모 재산·소득의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측면이 있는 것과 동시에, 높은 재산소득 부모 자녀의 비경제활동인구화를 낮춤으로써 세대간 재산·소득불평등이 축소되는 양면성을 갖는다.

<표 2>에서 <표 4>에 나타난 실증분석 결과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가. 위의 요약(i)은 남성과 여성 각각에게 적용한다. 그러나 부모교육이 남성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효과가 여성보다 더 크다.
- 나. 직업선택에서 아버지의 고학력은 남성의 경우 관리직과 사무직 선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경우 교육관련 전문직의 선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 다. 위의 요약(iii)은 남성과 여성 각각에게 적용된다.
- 라. 아버지의 고학력은 본인의 교육수준을 높이되 여성의 경우 본인의 높은 교육수준은 비경제활동인구 확률을 높이고, 다른 한편 직업선택에 있어서는 본인의 높은 교육수준은 관리직, 교육전문직, 기술직의 순으로 직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고학력의 영향은 양극화된 효과, 즉 자녀교육을 위한 노동시장 퇴장 경향과 남성과 같이 고급직종 선호 경향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 마. 특히 여성의 경우, 아버지의 저학력은 여성 본인의 저학력을 결과하며, 여성 본인

의 저학력은 높은 경제활동참가(취업 또는 실업)로의 경향성과 노무직, 생산직, 판매직이라는 저임금 직종을 집중되는 경향성을 동시에 낳는다.

IV. 맺음말

영·미 계통의 국가에서 문화, 즉 공유하는 핵심적 가치관(core values)과 이에 의해 나타나는 인간 행동양식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개인주의(individualism)이며, 동아시아권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집단주의(collectivism)이다.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체로 파악되나, 집단주의에서는 개인은 집단, 예컨대 가족, 기업, 지역공동체 등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하는 개체로 파악된다.

개인주의적 전통의 영미 국가에서는 부모의 재산·소득이 자녀의 교육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노동시장 성과는 개인의 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소득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가족 중심의 가치관이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행동을 규제해 왔다.¹⁵⁾ 최근 개인주의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가족 내에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 부모가 희생을 감내하거나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는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한국에서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전통하에서는 부모의 재산·소득이 자녀의 교육수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노동시장 성과 변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Blau and Duncan(1967)이 미국은 개인의 직업상 성공이 개인의 학력과 능력에 의존하는 업적지위(achieved status)사회로 실증적으로 파악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한국에서는 개인의 직업상 성공이 개인의 학력과 능력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가족 배경이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귀속지위(ascribed status)사회임을 실증적으로 밝혔다.¹⁶⁾ 즉 한국에서 개인의 직업상 성공은 개인의 학력·능력과 부모의 배경이

15) Hofstede(1983)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집단주의 지표에서 세계 연구 대상 48여개국 중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16) 익명의 심사위원은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의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로로 부모의 경험에 의거한 자녀훈육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자녀훈육을 자녀가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

결합된 결과(combination of ascribed status with achieved status)에 의존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 세대 빈곤가계에서의 출생 →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성취 → 현 세대 빈곤, 즉 빈곤의 상속(inheritance of poverty)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비록 대물림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더 심도있는 실증분석에 의존한다는 것을 이 논문은 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빈곤의 상속’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빈곤의 대물림을 완화시키고 개인의 직업상의 성공이 본인의 학력과 능력에 의존하는 ‘업적에 의한 지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건 균등을 낳는 시장정합적 경제·사회정책이 요청된다. 특히 본 실증연구의 요약 ‘마’에서 논의된 것처럼 일하는 저학력의 저임금 직종의 여성이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하면서 육아와 자녀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지원 시스템, 즉 양질의 공공탁아시설의 구축과 가난한 가구의 재산 형성제도의 형성 등이 무엇보다도 우선적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육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의 인적자본투자에 있어서, 개인 재능이 뛰어난 가난한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제공, 기숙사 입주를 통한 생활비 보조 등의 정책은 한국에서는 조건균등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과 관련된 향후 연구과제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직종선택과 노동력상태 선택에서 본인의 학력이 미치는 한계효과, 아버지 학력이 미치는 한계효과, 그리고 이러한 한계효과를 이용하여 아버지 학력이 본인의 학력을 매개로 하여 나타나는 간접적 효과를 다항로지트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그 계수들의 상대적 크기를 엄밀히 제시하는 일이다.¹⁷⁾ 본 논문에서는 관련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유의성과 그 방향에만 논의를 집중하였으나 향후 그러한 직접적·간접적 영향의 크기를 측정하고, 10년 주기별로 그 크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 본인의 노동시장 성과로 노동경제학에서 가장 흔하게 들 수 있는 것은 임금수

할 수도 있겠는데, 자녀훈육이 자녀 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자녀직업 결정이 부모와 자녀의 공동업적(joint achievement)이라는 점을 반영한다는 흥미로운 가설을 익명의 논평자가 제시한 것이다. 필자는 한국 사회가 업적지위사회인지 아니면 귀족지위 사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의 의해 좀더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 논평자의 관점 역시 심도있게 분석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의 관점을 여기에 그대로 실는다.

17) 이러한 관점을 제시한 익명의 논평자에 대해 감사드린다.

준 및 임금 상승(wage growth)이라고 할 것이다. 아버지 학력이 자녀의 임금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국노동패널의 5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는 것은 한국 경제가 업적지위사회 또는 귀속지위사회임을 규정하는 보다 직접적인 검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 사회의 전반적 고학력화로 인하여, 아버지 학력의 고학력화가 결과되고, 이것이 자녀들의 노동시장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낳을 것인지도 향후 연구 대상이다. 앞으로 연구에서는 부모 교육의 양쪽 측면과 직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후에 이들 변수들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까지 진행시키지 못한 것이 이 논문이 지니는 한계이며 동시에 향후 진행시킬 연구과제가 된다.

참고문헌

- 박호성. 『평등론』.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 방하남·김기현. 「변화와 세습: 한국사회의 세대간 신분이동 및 성취구조」. 『제2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노동연구원, 2000. 12(『한국사회학』, 35집 3호, 2001. 7에 재수록) pp.1~30.
- 서병선·임찬영. 「직종선택과 성별임금격차」. 『국제경제연구』, 8권 1호 (2004. 4): pp.15-54.
- Becker, Gary S. "Schooling and Inequalit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Com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0 (3) Part 2 (May-June 1972): 252-255.
- Becker, Gary S. and N. Tomes.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4 (3) Part 2 (July 1986): 1-39.
- Blau, Peter M., and Otis D. Duncan.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Wiley, 1967.
- Hofstede, Greet. "National Culture in Four Dimensions: A Research Theory of Cultural Differences Among Nations."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and Organizations*, 13 (1/2) (Spring-Summer 1983): 46-74.
- Schmidt, Peter and R. P. Straus. "The Prediction of Occupation Using Multiple Logit Model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6 (2) (June 1975): 471-486.

〈부표 1〉 본인 교육수준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평균값

| | 전체 | 남성 | 여성 |
|---------|--------|-------|-------|
| EDU | 10.67 | 11.57 | 9.85 |
| FEDU | 6.34 | 6.40 | 6.29 |
| FMANAGE | 0.02 | 0.02 | 0.02 |
| FTEACH | 0.01 | 0.01 | 0.01 |
| FTECH | 0.04 | 0.04 | 0.05 |
| FCLERK | 0.06 | 0.06 | 0.06 |
| FSALES | 0.11 | 0.11 | 0.11 |
| FAGRI | 0.47 | 0.45 | 0.49 |
| FBLUE | 0.11 | 0.12 | 0.11 |
| FSEOUL | 0.16 | 0.17 | 0.15 |
| FURBAN6 | 0.20 | 0.21 | 0.19 |
| AGE | 40.04 | 39.52 | 40.52 |
| GENDER | 0.48 | - | - |
| 표본의 크기 | 11,351 | 5,888 | 5,462 |

〈부표 2〉 직업선택 모형추정에 사용된 변수들의 평균값

| | 전체 | 남성 | 여성 |
|------------------|-------|-------|-------|
| OCC ₁ | 0.037 | 0.043 | 0.029 |
| OCC ₂ | 0.06 | 0.04 | 0.09 |
| OCC ₃ | 0.15 | 0.17 | 0.11 |
| OCC ₄ | 0.15 | 0.12 | 0.20 |
| OCC ₅ | 0.14 | 0.09 | 0.22 |
| OCC ₆ | 0.31 | 0.39 | 0.19 |
| OCC ₇ | 0.14 | 0.13 | 0.16 |
| EDU | 11.97 | 12.47 | 11.19 |
| EXPY | 19.15 | 19.64 | 18.42 |
| MARRIED | 0.72 | 0.76 | 0.66 |
| SEOUL | 0.27 | 0.26 | 0.28 |
| URBAN6 | 0.31 | 0.31 | 0.31 |
| EDUF | 6.59 | 6.39 | 6.89 |
| GENDER | 0.60 | - | - |
| 표본의 크기 | 3,712 | 2,234 | 1,478 |

〈부표 3〉 노동력상태 선택모형 추정에 사용된 변수들의 평균값

| | 전 체 | 남 성 | 여 성 |
|------------------|----------|--------|----------|
| EMP ₁ | 0.60 | 0.76 | 0.46 |
| EMP ₂ | 0.04 | 0.055 | 0.028 |
| EMP ₃ | 0.36 | 0.19 | 0.51 |
| EDU | 10.40 | 11.43 | 9.48 |
| EXP | 20.08 | 25.78 | 28.25 |
| EXPSQ | 1,070.68 | 939.34 | 1,188.30 |
| MARRIED | 0.83 | 0.80 | 0.85 |
| UNEARN98 | 322.56 | 308.06 | 335.54 |
| SEOUL | 0.26 | 0.26 | 0.26 |
| URBAN6 | 0.30 | 0.30 | 0.30 |
| EDUF | 5.50 | 5.52 | 5.50 |
| GENDER | 0.47 | - | - |
| 표본의 크기 | 9,877 | 4,689 | 5,188 |

abstract

Father's Education and Inequality in Korean Labor Market**Woo Hyun Cho**

In this paper, I examine the impacts of father's education, a proxy for family wealth and income, on the individual's education, occupational choice and labor force status. I find that father's education influences the level of individual educational investment and occupational choices directly, whose findings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Blau and Duncan(1967) and Phang and Kim(2000). I also find that father's higher level of education induces an individual to withdraw from the labor force, which results in erosion of inequality among family. Therefore I argue that the inheritance of inequality in family wealth tends to persist, while the erosion of inequality proceeds, as well.

Key words: father's education, occupational choice, labor force status choice, inheritance of inequality.